

대구시설공단 대학생서포터즈 대구실내빙상장 방문체험기

H조 박근아, 이기민, 김민진, 여준영

방문일시 : 2019. 8. 24.

1. 전반적 만족도

- 시설 및 환경 : 4.6점/5점
- 직원 친절도 및 응대태도 : 5점/5점

2. 우수한 점

- 시설 및 환경 측면
 - ✓ 빙상장 내부, 외부가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다.
 - ✓ 대구 곳곳을 흐르는 신천을 따라, 둔치가 깔끔히 조성되어 있었다.
 - ✓ 신천 둔치로 내려가는 곳 인근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.
 - ✓ 둔치 내, 조성된 여러 식물들과 나무에 이름표가 달려있어, 둔치를 산책하며 여러 식물과 자연을 느끼며 알아갈 수 있다.
 - ✓ 둔치 곳곳에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기구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.
 - ✓ 둔치 내에 있는 벤치 근처에, 방석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어, 비가오거나 벤치가 더러워진 경우에도 시민들이 편히 벤치를 이용할 수 있다.
 - ✓ 신천둔치 내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어, 둔치를 찾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에 예방 및 대비할 수 있었다.
 - ✓ 설치된 체육시설과 기구가 고장났을 때,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,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.
 - ✓ 둔치를 이용하고, 신발 및 옷가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 수 있도록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,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.
 - ✓ 음수대의 설치로, 생활체육 및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편히 음수를 할 수 있다.
 - ✓ 관람실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편안한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있었다.
- 직원 친절도 및 응대태도 측면
 - ✓ 밤에도 신천둔치를 찾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,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다.

3. 미흡한 점 / 개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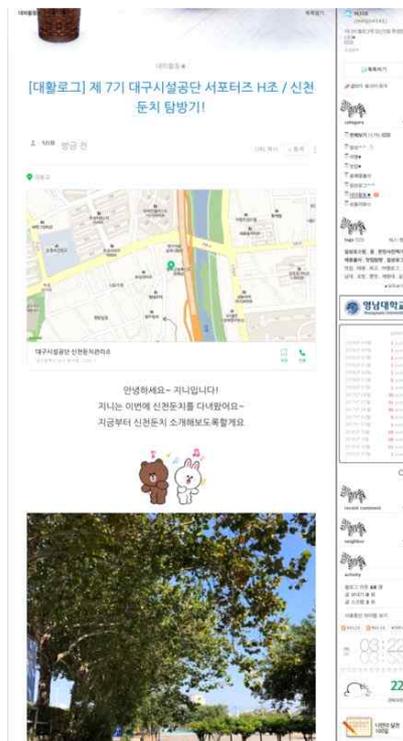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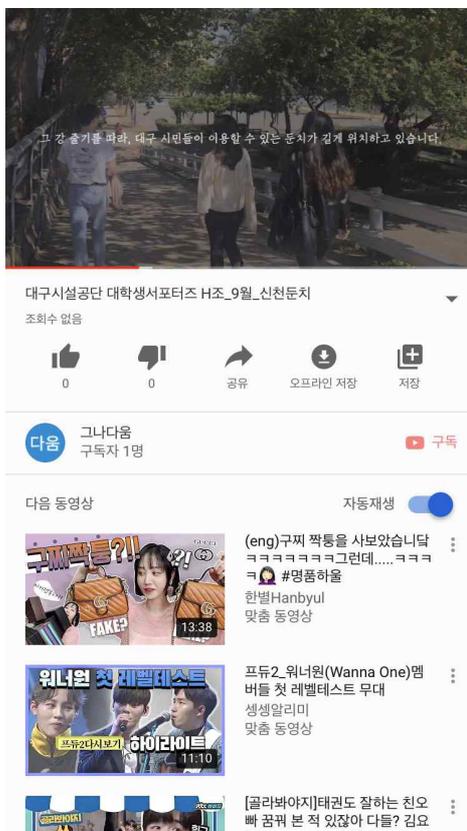
- ✓ 농구와 배드민턴 코트에 네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.

- ✓ 신천 둔치 내에 있는 많은 벤치들 중, 일부의 벤치에만 방석보관함이 설치되어있었다.

4. 제안사항

- ✓ 흙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송풍기를 멀리서도 알아보고,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큰 안내판이 설치된다면 좋을 것 같다.
- ✓ 둔치 내 오래되고 낡은 벤치들이 곳곳에 보였고, 새로 도색이 필요할 것 같았다.

5. SNS홍보 : 4건





좋아요 1개

dicohhh ✨ 대구시설공단 대학생서포터즈 7기 H조 ✨
안녕하세요! 대구시설공단 대학생 서포터즈 7기 h조입니다!

저희 h조는 이번에 신천둔치를 방문했습니다!! 신천이 대구를 가로질러 쪽 뻗어있어 저희 조는 대봉교 쪽의 신천 둔치를 방문했습니다!!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요!! 신천 둔치를 방문 해보니 시설도 잘 갖춰져있어서 주말이나 오후에 간단히 산책하기 정말 좋아보였어요! 😊 운동기구나 배드민턴장, 농구장 등 여러 시설들이 한쪽에 마련되어있었고 자전거 도로도 신천을 따라 쪽 뻗어있어서 자전거 타기도 좋아보였습니다~ 공중화장실도 군데군데 있고, 휴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먼지털이까지 준비가 되어있었어요!! 디코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설이었습니다!! 👍👍

산책하기 딱 좋은 가을 날씨에 가족, 친구,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~! 😊😊
#대구시설공단 #대학생 #서포터즈 #대학생서포터즈 #대외활동 #대구 #신천 #대구신천 #신천둔치 #대봉교 #대봉교역 #운동 #취미 #주말 #산책

여준영



여준영

6분 · 🌐

안녕하세요. 대구시설공단 서포터즈 7기 H조 여준영입니다!!

녹아내릴 듯한 무더위는 가고 시원한 바람이 찾아온 이번 9월달에는 신천둔치에 다녀왔습니다! 신천은 대구를 가로질러 금호강과 낙동강으로 이어져있는 하천인데요. 흐르는 강물을 따라 트레킹과 각종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

신천둔치 중에서도 저희 H조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 바로 옆에 위치하는 둔치에 갔습니다. 보기만 해도 시원한 강물과 생활체육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들로 걷기만 해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수달과 청동오리 등 여러 생물도 마주칠 수 있어요.

자연의 품은 좋지만 산을 오르긴 싫은 분들, 신천둔치에서 유유자적 걸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특히,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대봉교역 쪽 신천둔치의 경우 도보 약 10 ~ 15분 거리에 김광석 거리(방촌시장)가 있어서, 가벼운 트레킹 후 김광석 거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는다면 완벽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

감사합니다!!!!



6. 사진인증

